

성장사다리사업 중소기업 역할 '톡톡'

전주시, 기술혁신 R&D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등

전주시가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장사다리사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시는 21일 송전동 터존부페에서 올해 성장사다리 선정기업 대표 및 사업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전주시 성장사다리사업 성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소향토기업육성을 위한 '전주형 성장사다리사업'은 소기업이 중기업,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해부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해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의 올해 성장사다리사업의 진행성과를 보고에 이어, 성공사례 기업발표 및 내년도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성장사다리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 기술혁신 R&D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 생산기반 공정개선 △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 기업경영 비즈니스 등을 지원해 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성장사다리사업 성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이날 성공사례를 발표한 ㈜켄스텍은 전주형 성장사다리사업을 통해 R&D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아 초미립자 분무기

(Electric ULV Sprayer) 10세트(set)를 페루 내 농기계판매업체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업체는 향후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납품단가 및 현지 A/S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휴대성과 기능성을 강화한 즉석 간편식용 용기를 제작하는 (주)착한음식은 정부 R&D연구개발에도 참여해 즉석 발열 푸드용기와 셀프히팅 누들제품을 개발하고, 6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냈다. 이 업체는 올해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한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유망 중소기업 e-power 300'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참여기업 모집과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전년대비 77% 증가된 62개 업체를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난 5월 성장사다리사업의 성공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전주시-탄소융합기술원-지원기업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서로 다른 업종의 성장사다리 선정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업 경영상의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異)업종 융합산업 포럼'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도 국비(지특) 1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성장가능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에 나서,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이 전주를 대표하는 강소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덕진연못 청사초롱 트리 설치

"덕진연못에서 크리스마스 청사초롱을 들고 찬년 사랑을 나누세요." 전북 대표 관광지 조성되고 있는 덕진공원 연못에 크리스마스 앞두고 청사초롱 트리 조형물이 설치됐다.

전주시는 전북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덕진공원에 덕진연못의 상징인 연꽃과 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청사초롱 트리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2일 청사초롱 트리 22일 점등식을 갖고, 덕진공원 일대에서 크리스마스 관광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덕진공원 명소화를 위해 전주지역 청년문화예술조합과 함께 제작한 청사초롱 트리는 전통문화·자연생태·역사문화를 청사초롱에 담아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시각화해 제작됐다. 해질 무렵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아늑 불거리를 위해 청사초롱 트리가 점등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재 기자

시는 덕진공원 관광객유치를 위해 22일 덕진연못 청사초롱 트리 점등식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3일 동안 (사)이음과 함께 '연꽃 핀 덕진공원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덕진공원 관광이벤트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벤트에서는 크리스마스과 덕진연못을 상징하는 연꽃을 소재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덕진공원 일몰시간인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덕진연못 청사초롱 트리 주변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연꽃 문양 장신구 만들기, 따뜻한 연잎차와 다식을 나누는 연잎차 차례체험과 아이들을 위한 과자집 만들기 등의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덕진공원 메인 무대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어울리는 브라스 밴드와 어쿠스틱밴드 등 겨울 음악공연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자연생태관, 생태체험공간으로 새롭게 출발

닥터피쉬·열대어종 디오라마·포토존 등 설치

단순 전시·관람 중심의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 쉬리와 수달, 반딧불이 등 전주수변 생태계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으로 거듭났다.

전주시는 기존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주천 물속생태계와 주변 생물들에 대해 질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인 전주자연생태관으로 최근 재개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자연생태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 중인 전주동물원과 함께 전주시민들이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핵심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국비 6억5000만원과 도비 2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양한 수중 생태계를 새롭게 태어났다. 건물 1층(1123.99㎡)은 쉬리 등 전주의 물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어종에 대한 전시와 옛 전주천의 모습, 오염된 하천에서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변화한 전주천의 변화상을 전시했다. 또, 닥터피쉬와 열대어종 등을 추가해 관람객들의 흥미를 돋웠다.

또한 건물 2층(790.11㎡)에는 전주의 생태를 대표하는 깃대종인 반딧



단순 전시·관람 중심의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 쉬리와 수달, 반딧불이 등 전주수변 생태계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으로 거듭났다.

불이와 수달 등 수변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물들을 모티브로 반딧불이 정원과 전주천 및 주변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모형을 담은 디오라마, 포토존 등의 전시물이 제작·설치됐다.

시는 전주자연생태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리하고 보다 풍성한 관람을 돕기 위해 생태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15명의 생태해설사를 활용한 안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생태관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으며, 교수와 시민단체, 건축사 등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다울마당)의 10회에 걸친 자문과 벤치마킹 등

을 거쳐 리모델링 공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단순 관람 및 전시공간이 아닌 전주의 자연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명칭도 기존 전주자연생태박물관에서 전주자연생태관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 2008년 5월 개관한 전주자연생태관에는 그간 총 10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249회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6,855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을 제공했다.

전주자연생태관의 입장료는 어린이 500원, 청소년 1000원, 성인 2000원(20인 이상 단체관람시 할인)이며, 관람 문의는 전화(063-281-28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공구점 주인 쇠파이프 폭행한 세탁소 김모씨 8개월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쇠파이프를 날려 세탁물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공구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3월 28일 오후 3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아파트 상가 내에 A씨(54)가 운영하는 공구점에서 길이 50cm의 긴 쇠파이프로 A씨의 머리와 손목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A씨가 보일러 배관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로 쇠파이프를 날리게해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은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해 범죄전력이 총 14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중국 유학생과 불륜... 아이 낳자 폭행한 경찰 조사

사건 관계자로 알게된 중국 유학생과 불륜을 벌이고 아이가 생기자 폭행을 일삼은 현지 경찰관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1일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박모(39)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경사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도중, 중국인 대학생 A씨(22)의 사기 피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륜 관계를 유지 하던 도중

2015년 1월에는 박 경사의 아들이자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경사에게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박 경사는 오히려 협박과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경사는 현재 폭행 혐의로만 인정할 뿐 A씨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의 진술 확보 후 즉시 조사에 들어가 11월 26일자로 직무고발을 한 후, 11월 30일자로 바로 직위해제를 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찰청, 연말연시 민생안정 화상회의 실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21일 이후신 수사과정의 주제로 지방청 수사와 계장급과 도내 15개 경찰서 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팀장, 경제범죄 수사팀장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연시 민생안정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화상회의는 전북경찰이 2016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차단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과 관련해 중점 단속대상과 지시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을 악용하여 고수익을 벌이로 성행하고 있는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주식사기 등 투자사기 등 각종 투자사기 행위와, 생활비 등 자금수요는 높지만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후신 수사과정은 "집중 단속으로 가시적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서민경제에 대한 국민 체감 안전도와 경찰 수사 신뢰도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